



■ 진학 실적으로 전국 중·고교를 서열화하는 웹서비스에 대한 비판보도(2020.05.11.)

## ‘우리 학교는 전국 몇 등?’

# 진학률로 중·고교 줄세우기 관행 여전, 교육부가 학원법 개정으로 규제 나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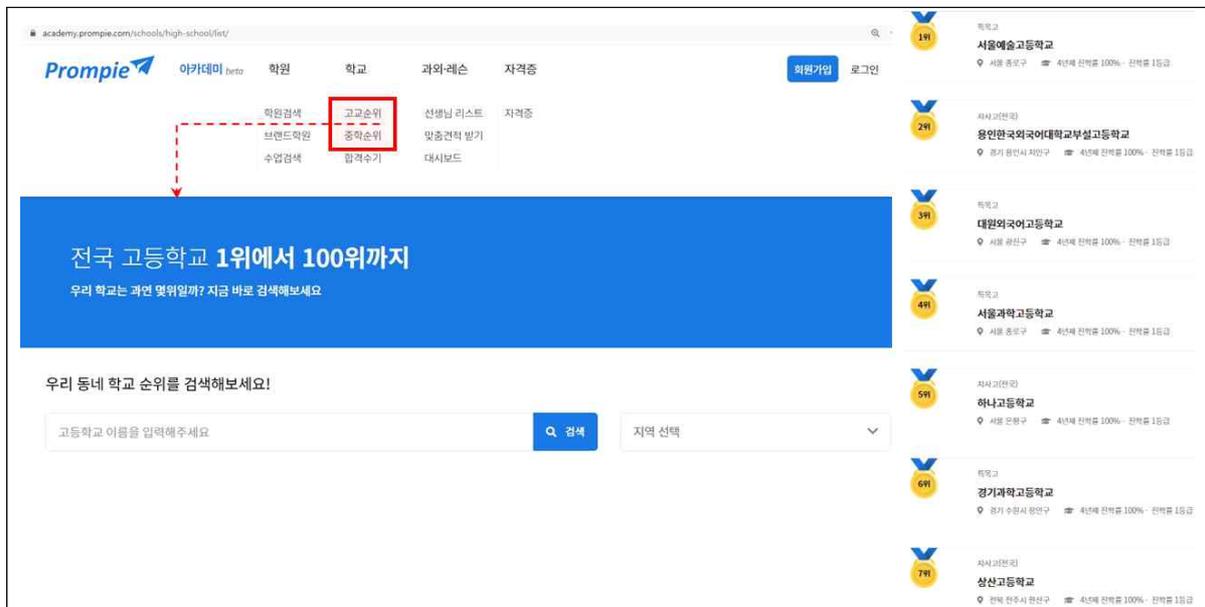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상급학교 입시 실적순으로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과 더불어 이를 공고화하는 사교육 시장의 비교육적 영업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옴으로써 줄 세우기식 경쟁교육의 폐해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왔음.
- ▲ 교육부도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는 학교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개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 이러한 와중에 ‘프람피(Prompie) 아카데미’라는 웹서비스는 전국 중·고등학교의 상급학교 진학률로 각 학교별 등수를 매겨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페이스북 및 업체 블로그에 ‘전국 고교 순위’, ‘우리 학교는 몇 위?’ 등과 같은 문구로 광고하고 있음.
- ▲ 해당 서비스는 ‘상급학교 진학 실적=학교 교육력’이라는 인식 아래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서 중학교는 특목/자사고 진학자 수, 고등학교는 4년제/국외대학 진학자 수가 많은 순대로 학교별 등급 및 순위를 매기고,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울대 진학자 수도 공개하고 있음. 특히 상위 순위의 몇 학교만이 아닌 총 1,878개(80%) 고교, 3,100개(96%) 중학교 등 전국 대다수 학교들을 진학 실적으로 서열화하고 있음.
- ▲ 이러한 정보가 전국의 학생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어 △출신학교에 따른 우월감 또는 열패감을 조장하고, △학벌주의를 공고화하며 특정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 및 사교육을 부추겨 가계부담을 증폭시키고, △특정 학교로 우수학생 쏠림 과열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학교 현장에서의 쇄신의 노력을 무력화하고 있음.
- ▲ 국가인권위 역시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를 통해 학교를 서열화한 학원의 홍보물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교육감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바 있음.
- ▲ 따라서 교육부는 상급학교 진학 실적으로 중·고등학교를 서열화하는 서비스 및 광고

게재가 즉각 중단되도록 조치하고, 차후에도 ‘학교 줄세우기’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원법 개정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상급학교 입시 실적 순으로 서열화된 고교체제 개선과 더불어 이를 공고화하는 사교육 시장의 비교육적 영업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옴으로써 줄 세우기식 경쟁교육의 폐해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는 학교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는 학교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교육부도 서열화된 학교체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프람피(Prompie) 아카데미’라는 웹서비스는 전국 중·고등학교의 상급학교 진학률로 각 학교별 등수를 매겨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페이스북 및 업체 블로그에 ‘전국 고교 순위’, ‘우리 학교는 몇 위?’ 등과 같은 문구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림 1] 상급학교 진학 실적으로 중·고교를 서열화하는 웹서비스



[그림 2] 고교 서열화 업체의 페이스북 광고

과외순이와 과외들이  
Sponsored · 🌐

5위 하나고, 4위 서울과고, 3위 대원외고.....우리학교는?

ACADEMY.PROMPIE.COM  
전국 고교순위 확인하기  
전국 고등학교 순위를 확인해보세요

더 알아보기

👍👎👤 1.3천명    댓글 1.4천개    공유 201회

👍 좋아요    💬 댓글 달기    ➦ 공유하기

전문가와 의뢰인이 만나는 곳, 프람피  
Sponsored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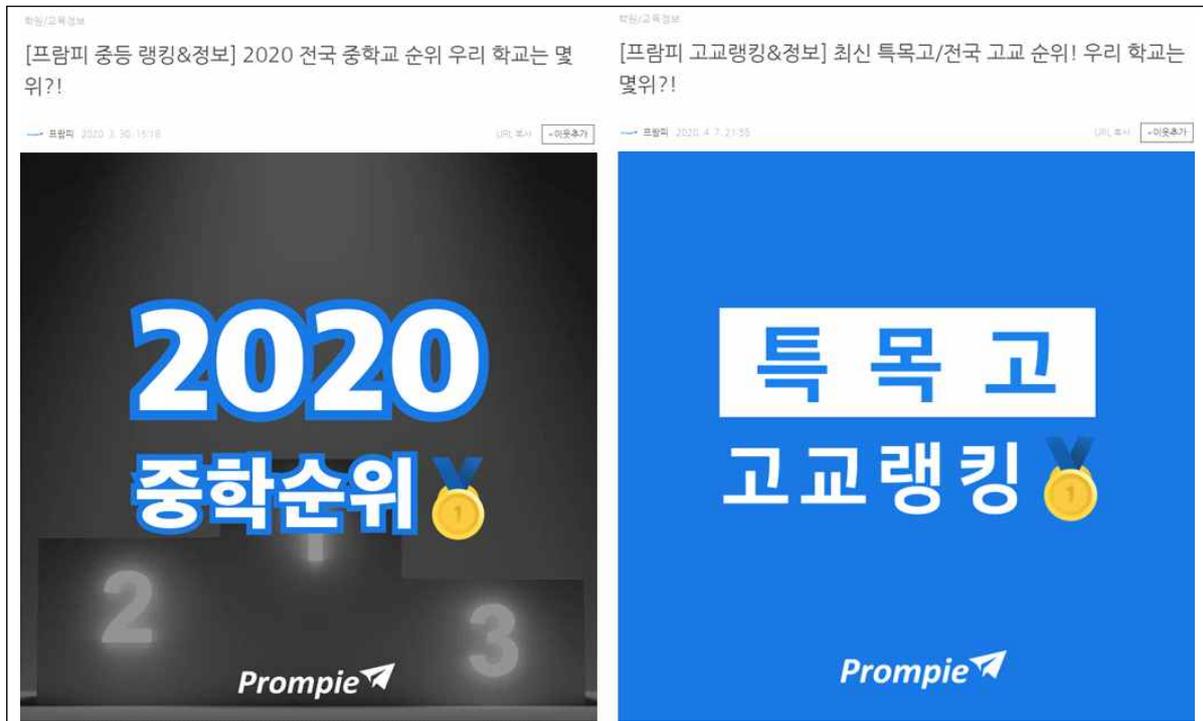
전국 고등학교 순위 우리 학교는 몇위?!

BLOG.NAVER.COM  
서울 '일반고' 1위는?  
매년 업데이트 되는 전국 고등학교 순위,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 238명    댓글 116개    공유 26회

👍 좋아요    💬 댓글 달기    ➦ 공유하기

[그림 3] 고교 서열화 업체의 블로그 게시물



해당 서비스는 학교별 순위를 산출하기 위해 공시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자료에서 특목/자사고 진학자 수, 고등학교의 경우 4년제/국외대학교 진학자 수가 많은 순대로 학교별 등급 및 순위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연도별 서울대 진학자 수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산출된 학교들의 순위는 상위 몇몇 학교들만이 아닙니다. 전체 고등학교 수의 \*80%(1,878여개), 전국 중학교 수의 \*96%(3,100여개)에 달하는, 그야말로 전국 대다수 학교들의 순위가 진학 실적만으로 서열화되어 1등부터 꼴등 및 순위밖 학교까지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2019년 교육기본통계(2019.8.30.)' 학교급별 학교 수 기준

[그림 4] 학교별 순위 산출 방법

(중학교)		(고등학교)													
<b>순위 선정 방법</b>		<b>순위 선정방법</b>													
특목고/자사고 진학률 = (특목고 진학자 수 + 자사고 진학자 수) / 당해 졸업자 수 * 특목고 : 과학고, 외고, 국제고, 예고, 체고 * 자사고 : 자율형 사립고 * 동점 순위시 특목고/자사고 진학자 수로 순위를 결정 * 졸업자 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 순위 산정에서 제외		진학률(4년제) = (4년제 대학교 진학자 수 + 국외 대학교 진학자 수) / 전체 진학자 수 <b>진학률 등급표</b> 전국 고등학교 진학률(4년제) 기준													
<b>등급 선정표</b>		<table border="1"> <thead> <tr> <th>1</th> <th>2</th> <th>3</th> <th>4</th> <th>5</th> </tr> </thead> <tbody> <tr> <td>상위 20%</td> <td>상위 40%</td> <td>상위 60%</td> <td>상위 80%</td> <td>80% 미만</td> </tr> </tbody> </table>		1	2	3	4	5	상위 20%	상위 40%	상위 60%	상위 80%	80% 미만		
1	2	3	4	5											
상위 20%	상위 40%	상위 60%	상위 80%	80% 미만											
<table border="1"> <thead> <tr> <th>등급</th> <th>등급 선정 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td> <td>특목/자사고 진학률 상위 20%</td> </tr> <tr> <td>2등급</td> <td>특목/자사고 진학률 상위 40%</td> </tr> <tr> <td>3등급</td> <td>특목/자사고 진학률 상위 60%</td> </tr> <tr> <td>4등급</td> <td>특목/자사고 진학률 상위 80%</td> </tr> <tr> <td>5등급</td> <td>특목/자사고 진학률 상위 80% 미만</td> </tr> </tbody> </table>		등급	등급 선정 기준	1등급	특목/자사고 진학률 상위 20%	2등급	특목/자사고 진학률 상위 40%	3등급	특목/자사고 진학률 상위 60%	4등급	특목/자사고 진학률 상위 80%	5등급	특목/자사고 진학률 상위 80% 미만	아직 졸업자를 배출하지 않았거나, 진학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 진학률 등급이 표시 되지 않습니다.	
등급	등급 선정 기준														
1등급	특목/자사고 진학률 상위 20%														
2등급	특목/자사고 진학률 상위 40%														
3등급	특목/자사고 진학률 상위 60%														
4등급	특목/자사고 진학률 상위 80%														
5등급	특목/자사고 진학률 상위 80% 미만														
여러 학교가 등급의 경계에 있을 경우 상위 등급으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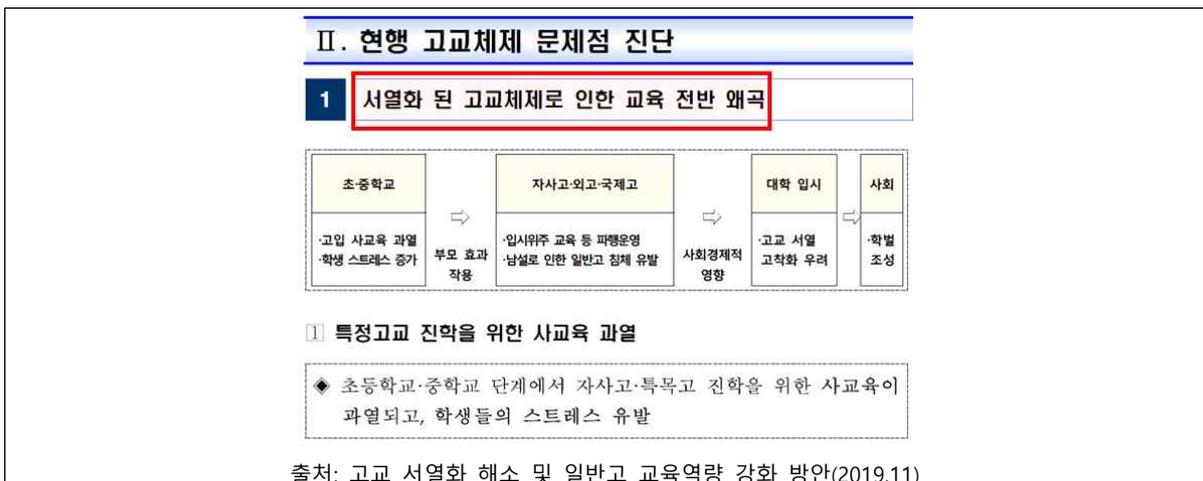
이러한 중·고교 순위 정보는 ‘상급학교 진학 실적=학교 교육력’이라는 인식 아래 중·고등학교의 교육적 역량을 오롯이 특정 상급학교 진학률 지표로만 평가된 것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가 전국의 학생들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에게 여과 없이 노출될 경우 △출신 중·고등학교에 따른 우월감 또는 열패감을 조장할 가능성이 큼니다. 실제로 해당 서비스의 페이스북 광고 댓글을 보면 이러한 우려가 현실임이 드러납니다. 해당 광고는 SNS 공유만 수백 회, 댓글만 수천 개가 달리며 상당수의 10대 중·고교 재학생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는데, ‘50위까지 3개만 일반고고 나머지는 특목자사고’와 같이 고교 유형에 따른 위화감을 표하거나 ‘1,700등이라 눈물이 난다’, ‘이제 자랑 안하고 다닌다’ 등과 같이 자신의 학교 순위에 따른 열패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림 5] 페이스북 광고에 대한 댓글 반응



이러한 진학 실적에 따른 중·고교 순위 정보를 방치할 경우,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주의는 더욱 공고화되고 출신학교에 따른 우월감 혹은 열패감이 만연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 및 사교육을 부추겨져 가계부담은 증폭될 것이며, △특정 학교로의 우수학생 쏠림현상은 더욱 과열되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고교 현장에서의 쇄신의 노력 및 서열화된 학교 체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을 무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림 6] 서열화된 학교 체제에 대한 교육부의 문제의식



금번에 문제시된 ‘프람피(Prompie)아카데미’ 라는 웹서비스는 현재 정식 상용화 이전 단계 이기는 하지만, 오픈베타서비스로 누구든지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다 각종 SNS 광고로 이미 상당수에게 노출된 상태입니다. 고등학교도 모자라 중학교 단계부터 상급학교 진학 실적만으로 학교에 순위를 매기는 그릇된 일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어른들이 만들어낸 서열화된 학교 순위를 마주하고는 그것을 마치 자기 자신의 순위로 내면화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도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을 게시하는 학원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16조 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도·감독할 필요에 대해 언급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위의 주문은 우리 사회에서 특정 학교를 중심의 서열화가 학벌주의를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고, 학벌주의가 심화될수록 특정학교 진학 경쟁에만 몰두하게 되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근거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비단 학원법상 학원 업종 뿐 아니라 교육계 전반에서 만연한 학교 서열화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 당국의 관리 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림 7]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대한 인권위 주문 中(2016.7.8.)

<p><b>제 목</b>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에 의한 학벌차별 등의 관행 개선 위한 의견표명</p> <p><b>사 건</b> 15진정0262300</p> <p style="text-align: center;"><b>주 문</b></p> <p>1. 전국 각 시·도 교육감에게, 학벌차별 문화를 조성할 우려가 있는 학원의 특정학교 합격 홍보물 게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학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p>
--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으로 각자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어느 학교에서든지 질 높은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 가까운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가 되는 미래형 학교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이러한 흐름을 역행하는 사교육 시장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도 적극적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림 8]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中

4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 쾌적한 일반고 환경 조성

▶ **집 가까운 학교가 가장 좋은 학교**이자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모든 학교가 교육 여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미래형 학교로 변화합니다.

출처: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2019.11)

특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학습지나 웹플랫폼 교육서비스 등의 통신판매업의 경우 현행 학원법의 대상이 아니지만 명백한 교육 업종입니다. 이러한 업태에서 교육적 목적으로 공시된 진학 정보를 자의적 목적으로 오용하여 학교를 서열화하고 이를 유통하는 서비스나 광고 집행 시 교육부가 나서서 행정지도 등의 적극적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차후에도 동일 사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진학률로 학교를 서열화하거나 특정학교 합격을 홍보하는 등 ‘학교 줄세우기’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을 학원법상 신설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 5. 11.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문의: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 (02-797-4044 / 내선 510)